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 사사기 15:1-8

- 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 2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 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 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 5 화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어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 6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딘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 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 8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의 복수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풍속을 따랐고 블레셋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향한 삼손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아내를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삼손이 화가 풀렸는지 처가에 선물로 줄 염소 새끼를 가지고 딘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시집 보냈으니, 큰 딸보다 더 예쁜 작은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허물로 삼지 못할 것이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취할 자기 행동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삼손은 여우 두 마리 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 놓았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쌓아 놓은 곡식 단과 베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불타버렸습니다. 블레셋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먹을 양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딘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를 불살라 버리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을 못 이겨서 남편을 속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남편을 속임으로써 불에 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로 가버렸습니다.

폭력의 명분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 처절한 복수극이 펼쳐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덩뎡해서 그렇지 엄청난 살육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복수극이 그렇듯 삼손 측과 블레셋 측 양쪽 다 명분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벌어진다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일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기네들 발을 불살라 버린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들의 복수극은 정의구현이나 악에 대한 응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아스그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스그론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결혼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는데 그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아내를 버려두고 집으로 가버린 삼손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친구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낸 장인에게도 부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삼손은 정작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역시 아무 상관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발을 불태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삼손이 자기 아내와 장인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는 것은 원문을 직역한 것이고 새번역은 이 부분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찔렀다’고 의역했습니다. 자기 장인과 아내를 죽인 일에 가담했던지 아니던지, 화가 풀릴 때까지 눈에 띄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삼손이 휘두른 폭력은 정의구현도 아니고 정당한 보복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분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부당한 일에 대해 정당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저 자기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삼손이 사랑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고, 상한 자존심에 보상을 받기 위해 복수를 빙자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발을 불사른 삼손은 내버려두고 아무 힘도 없는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삼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버림 받은 삼손이 이 일로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만한 상대를 골라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결국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를 구실로 저질러진 분풀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자

삼손은 복수를 위해서 여우 3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잡았을까요? 여우 3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블레셋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편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대단한 능력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 읽은 본문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여우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와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은 삼손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거나,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거나, 여호와와 영이 임했을 때만 삼손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크게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결별하게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악한 일이었듯,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삼손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악한 죄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흠이 많고 불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는 악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할 구원자는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 로마서 5:17-18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지도 않아 죄 지을 시간조차 없는 갓난 아기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영향이 갓난 아기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만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열두 사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조롱하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의로움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 대신 삼손이 겿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사장의 종들이든 로마 병사들이든 자기 제자들이든 눈에 띄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쳐죽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사기와 같은 피의 복수극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와 생명을 얻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정의와 복수를 빙자한 분풀이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영향이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분풀이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삼손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삼손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매력

영어권 이름 중에서 성경에서 따온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미가엘’, ‘데이빗’은 ‘다윗’, ‘피터’는 ‘베드로’, ‘존’은 ‘요한’, ‘폴’은 ‘바울’, ‘메리’는 마리아의 영어식 이름이지요. 그런데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헤롯’이나 ‘빌라도’에서 따온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어주는 것인데, 자기 자식들이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있어도 아합이나 빌라도처럼 되기 원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영어식 이름인 ‘แซม슨’은 흔한 이름입니다. 스포츠 스타 중에서 ‘삼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장발인데다 운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삼손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신앙이나 인격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릴 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인물로 정죄되어서 그 이름을 쓰기를 꺼리는 사람들보다 더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이름이나 별명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진 힘과 자유분방함에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조폭 두목이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나는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준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인내하거나 덮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몇 배로 되갚아 줍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는 일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늘 혼자 다니면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비장하고 강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번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삼손과 같은 인생과,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해야 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인생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통쾌하게 갚아준 경험과 참고 인내한 경험 중 다른 사람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과 같이 인내, 희생, 대의명분,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닌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삼손과 다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알의 밀

요한복음 12:24-26을 읽겠습니다.

❖ 요한복음 12:24-26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와 생명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손과 같은 세속적인 영웅이 아닌 주님을 섬긴다면, 삼손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해서 아담처럼 모든 사람을 죄로 물들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순종한다고해서 내 순종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린 신앙고백과 같이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를 느낄 때에, 삼손처럼 정당한 응징을 구실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붓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분노와 폭력이 아닌, 인내와 절제와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는 앞에서 원수를 통쾌하게 갚아 주시거나, 억울함이 싹 잊혀질만한 현실적인 보상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나눠주시는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내와 용서와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운전하고 가다보면 몰지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기분대로 말을 내뱉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차에 탄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의지할만한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을 해봐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내 고민과 화를 깊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탄엔 참을 때까지 참아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지만, 돌아보면 결

국 블레셋 사람처럼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핑계를 찾아봐야 삼손처럼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삼손의 절제없는 분노가 큰 파장을 일으켜 유혈극으로 변진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한 태도나 행동은 내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불안함이나 분노를 느낀 사람은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소하려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나의 작은 분노와 불만이 수습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그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보면 선악이 모호해지거나 감정이 무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민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고 가려서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며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한 알의 밀로 죽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한 알의 밀과 같이 작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마냥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를 담아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멋지게 복수하면 당장에는 속이 후련하더라도, 그 후련함이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롭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를 나중에 찾는다면, 만만한 상대를 골라 화풀이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 분노가 또 다른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기 선에서 그 사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인내와 넉넉함과 아량과 이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시고 한 알의 밀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풍성하게 나눠주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같이 분노와 악의 사슬을 몇 배로 키워서 이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의와 생명과 평안과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당시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쾌감이나 분노를 표출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엉뚱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나요?
2. 삼손의 절제 없는 분노가 큰 살육으로 변졌던 것처럼 자신의 사소한 분노가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작은 친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3. 분노, 증오, 억울함, 실망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나눠봅시다.